

## 치 사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부설 백파사상연구소와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그리고 삼각산 도선사가 수선결사문 출판기념회와 임진년 신년 문도 교례회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정체성 회복이란 관점에서 백파스님의 작법귀감을 동국대학교가 한글 번역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백파사상 연구소가 선문수경을 번역하였고, 금년에 스님의 수선결사문을 번역하게 된 것은 문도를 넘어 종단과 불교에 매우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부처님의 정맥을 화두선이라는 수행가풍으로 일천칠백년을 이어오면서 이 땅에 많은 큰스님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대 조사님들의 수행력에서 얻은 힘이었습니다.

앞으로 역대 조사님들의 법을 잇기 위해서는 한국불교 고승들이 수행하시면서 지으신 많은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수행에 전념하는 납자들은 물론 모든 사부대중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나침반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백파스님은 율(律)과 화엄(華嚴)과 선(禪)의 정수(精髓)를 모두 갖춘 거장(巨匠)이었으며, 평소에 교유가 깊었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초상화를 그린 뒤 ‘해동의 달마(達磨)’라고 격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임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새로운 이해는 백파라는 뛰어난 스님이 출현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백파스님의 사상사적 위상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사건은 단연 수선결사입니다. 그리고 이 결사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 문건이 바로 「수선결사문」(1822년 작성)인 것입니다.

작년에 백파연구소에서 번역한 선문수경 이후 스님의 수선결사문은 혼탁한 현대의 수행가풍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한편의 공덕 불사로 깨달은 수행자가 많아지길 바라며 백파사상연구소의 번역출간 사업과 석전 박한영 스님 연구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수선결사문이 후대의 선원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선맥을 크게 일으키고 우리 종단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년 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